◉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일년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온 날을 돌아보고, 소망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내다보십시오.

7월 2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모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인 다음 주일(7월 6일)에 냉난방비 헌금을 바칩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십시오.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1만원이면 5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청파의 이름으로 명명될 숲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여름은 다소 덥게 지내는 것이 생체 리듬에 맞습니다. 에어컨 냉방은 최소로 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내면의 혁명을 불러옵니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쉬지 않으시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정성스러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익만을 생각하며 맡겨진 일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겉치레에 머무를 뿐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온전히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은 연일 밤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며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된 대화와 소통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갇힌 자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핍박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폭력적인 손길과 눈빛을 거두어들이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임정자 한완식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지윤
박규석 박경선 이광용 형인순 이봉옥 임승동 백혜숙 전월수 최종원
임고운 김지호 최윤희 박지인 안종일 정현주 권미숙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현영 정원석 박경원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이광섭
김수연 전영규 김경수 황경순 황자순 황원순 김수진 김승현 문홍일

감사헌금:
하재두 박준희 이기분 김중수 이순정 최윤기 박영수 김영순 곽동기
전나래 김희진 박홍재 최윤선 윤주원 오재환 오광자 이은숙 무명10

생일감사헌금:
박현진 송임회 방 민 윤석철

100주년 헌금: 배연선 무명1 (누계 : 208,810,000원)

녹색꿈헌금: 다음주 게재 (누계 : 610,000원)

	장 혜 숙	장 혜 숙	송 임 회	노 봉 임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영 한	노 순 옥
	임 정 자	임 정 자	정 복 순	이 소 순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이 명 희
	안 정 숙	박 애 순	문 금 석	박 옥 순
	박 홍 재	곽 권 희	문 복 순	김 경 수
	박 효 선	허 정 윤	교 회	박 효 선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이 갑 재
	이 순 정	김 금 순	유 영 남	강 순 배
	이 형 숙	권 미 숙	구 성 실	이 정 은
	안 홍 숙	오 현 정	정 현 주	임 수 연
	백 혜 숙	정 옥 영	김 시 영	김 희 우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김 명 희
	이 영 란	박 미 영	배 삼 순	박 미 영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임 창 선

나는 펄럭이고 싶다

똥을 털어내고 비누칠을 하면서
세상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얼룩진 기저귀가
아기의 똥오줌을 받아내어 아기를 자라게 하듯
남의 밑에서 세상의 오물을 받아내고
구린내를 견뎌내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한다.
비누거품 속에서 자신을 헹구어내며
다시 기저귀가 되어가는 사람들,
푸르스름하게 얼룩진 슬픔을 털고
기저귀를 빨면서
부단히 더러워지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밝은 햇살 아래 눈부신 기저귀처럼
하늘 한모퉁이 나도 그렇게 펄럭이고 싶다.
보송보송한 살 한점 세상에 보태주고 싶다.

-나희덕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의 구부러지고 뒤틀린 모습에 실망만 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곳을 바르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불평과 시비의 말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묵묵히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환경 영상물 시청	7월 기도의 밤
밥 한 공기(GMO에 대하여)	인도/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박인혁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박시내 집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창운　박석희　허정윤　김금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아름다워라, 우리의 삶이여

인생은 찾음이다. 삶은 자람이다. 영원의 미완성이다. 채 되지 못한 것, 채 되지 못해 채 되기를 찾는 것, 채 됨을 채우려 할수록 차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본향은 하늘에 가 있다.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이 하늘. 어디서도, 언제도, 거기가 끝인 곳이 하늘. 인생은 채 되지 못한 채로 된 것, 채 됐다면 채 못 된 것.

★

아름다운 심정을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심정은 감응 하는 것이요, 감화 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아름다운 심정이 되고 싶을진대 아름다운 혼과 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난초를 짝하면 향기로워지고, 썩은 생선을 짝하면 냄새가 난다. 혼은 그 짝하는 것에 따라 자란다. 너희는 그럼 누구를 짝하느냐? 위대한 심정이란 곧 고상한 심정이다. 고상이란 곧 영원한 무한이다. 재주에 있지 않고 기술에 있지 않다. 이 문화의 전당 안에서 너희 사모하는 짝은 누구이냐? 괴테냐? 괴테보다는 차라리 톨스토이가 나을 것이다. 바이런이냐? 하이네냐? 그렇지 않음 워즈워드냐? 테니슨이냐? 브라우닝이냐? 베토벤이냐? 단테냐? 그보다도 간디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너희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혼이 되고자 하거든 짝할 이는 오직 한 분 '그이'뿐이니라.

★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얼 힘 을 키우는 데 있다.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아들딸을 낳고, 직업을 갖고 지식을 캐고 성격을 다듬고 예술을 지어내며, 나라를 하고 세계 문화를 쌓고 도덕을 행하고 종교를 믿어서, 결국 얻는 것은 얼의 힘을 키워 간다는 하나뿐이다.

★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아침에 해가 올라오도록 자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거나, 어떤 자리에 있다거나, 무슨 책을 본다거나, 그가 어떤 사람이야, 다시 물을 필요 없다. 아무도 일찍 일어나기가 싫어졌거든 기운이 풀린 줄을 알아야 할 것이요, 기운이 아주 풀리면 죽는다. 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사람이다. 모든 잎과 꽃이 새벽에 피고 모든 새가 새벽에 깨듯이, 사람의 정신도 새벽에 가장 맑게 갠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위대한 정신의 사람은 다 일찍 깼다.

★

얼굴에도 빛이 있어야 하지만 마음은 더구나 빛이 나야 한다. 속이 밝아야 밝은 사람이다. 그리고 속에 빛이 나는 것은 글읽기로야 된다. 아무리 맑은 거울도 닦지 않고 두면 흐려 버린다. 공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많은 티끌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둘러싸는 분위기도 그렇다. 그러므로 그냥 두면 흐린다. 자주자주 닦아야 한다. 마음을 닦는 데는 글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옛 사람은 공부한다는 사람이 사흘만 글을 아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난다고 했다. 그 대신 부지런히 공부하면, 사흘만 있다 만나도 눈을 비비고 봐야 알아볼 만큼 달라진다고 했다.

★

몸과 마음에는 떼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 인격은 몸·마음이 하나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내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우주가 무한하다 하여도 그 중심은 나요, 만물이 수없이 버려져 있다 하여도 그것을 알고 쓰는 것은 나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의 귀함을 알아야 한다. 욕심이 하자는 대로 끌려 내 몸을 허투루 다루는 것은 내 몸을 천대함이다.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이 몸, 이 마음을 허투루 하면 우주와 만물은 차례와 뜻을 잃고 어지러워지고 맞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몸조심이란 곧 몸 공경이다. 다른 사람보고 허리를 굽실굽실 비겁하게 굴복·아첨하는 것은 이것을 지어 준 하나님을 욕함이요 이것을 지키고 길러 준 역사를 업신여김이다. 거울에 비치는 네 얼굴을 보라. 그것은 백만년 비바람과 무수한 병균과 전쟁의 칼과 화약을 뚫고 나온 그 얼굴이다. 다른 모든 것 보기 전에 그것부터 보고, 다른 어떤 사람 사랑하기 전 그 얼굴부터 우선 사랑하고 절해야 한다.

★

스스로 새로워지는 일함이 곧 쉼이요, 쉼이 곧 자람이다.

--함석헌 명상집, <<너 자신을 혁명하라>> 중에서